

결 정

2018 - 302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2월 3일자(캡처시각) 「“김밥, 즐겨 먹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 | 나눔스퀘어 Light Extra Bold 추가 | 12-03 14:52 편집

7년 만에 완벽 변신한 'BMW X3', 가격 봤더니...

- '인천 뉴싯배 전복' 13명 사망...3시부터 인양 작업 중
- 여야, 내일 오전 10시30분 협상 재개..."마지막 합의 시도"
- 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내년 3월 내놓는다
- 전병헌 내일 재소환...GS 뇌물' 보강해 영장 재청구 전망
- 트럼프, 의회서 통과한 마당에...법인세율 22% 거론

"다리미 한 대에 400만원" 불티나게 팔리더니 '인천 뉴싯배 전복' 생존자 2명, 취재진 질문에... 30만원대 중저가폰,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반전' "이러다 보증금 마련도 힘들 판" 갠투자자들 '초비상' "오늘부터 스크린프랑스서 담배 폼다간..." 날벼락

"김밥, 즐겨 먹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

"잘 나가는 삼성전자 앞날 장담 못한다" 충격 경고

한 병에 '1만원 훌쩍' 없어서 못 파는 막걸리

건강검진 '정상' 나와도 방심하면 안되는 까닭

현대차 신타페 '파작' 얼마나 깎아주길래

"렉스턴 긴장해!" 맥스크루즈 출시

삼성 '갤럭시S9' 어떤 모습일까

소녀시대 효연, 데뷔 후 최초로 집 공개 '감탄'

추자현, 입덧 고백 "먹지도 않던 사과를..."

"유아인 경조증 진단, 고소 당할 수 있지만..."

이은하, '쿠싱증후군' 투병 공개...원인 뒤통자

한국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캡처시각 17. 12. 3. 16:43>

『자장면·소주 등 외식물가 큰폭 상승...소비자물가 대비 2배

입력 2017-12-02 14:47 수정 2017-12-02 15:26

자장면 소주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들의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

내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외식물가 상승률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1.9%), 4월(1.9%), 6월(1.9%)에 이어 10월(1.8%)과 11월에는 2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11월 외식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품목인 김밥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 상승했고, 짬뽕(5.0%)과 자장면(4.8%)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 가까이 올랐다.

서민들의 술인 소주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상승했고, 맥주도 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생선회(4.9%), 갈비탕(4.4%), 볶음밥(3.8%), 라면(3.3%), 설렁탕(3.0%) 등도 3% 이상 가격이 뛰었고, 냉면(2.9%), 떡볶이(2.9%), 삼계탕(2.8%), 돼지갈비(2.7%), 삼겹살(2.7%)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39개 외식품목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오른 것은 불고기(1.2%), 막걸리(1.2%), 치킨(1.1%), 햄버거(1.1%) 등 10개 품목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기료 기저효과 등으로 10~11월달에 상승률이 낮았다"면서 "반면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개인서비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외식물가도 김밥 등 품목별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22900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통계청 발표에서 2017년 11월 외식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예의 하나로 김밥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 「자장면·소주 등 외식물가 큰폭 상승…소비자물가 대비 2배」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김밥, 즐겨 먹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제목을 붙였다. 마치 시중에서 파는 김밥이 위생검사 등에서 문제나 발생한 것처럼 오도했다. 어감상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곡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